보성군, 꽃과 바다가 함께하는 낭만적인 봄 여행

왕벚나무터널부터 오봉산까지… 자연이 선사하는 특별한 봄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 보성이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봄 여행지를 선보인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따라 걷고, 산과 바다 내음을 맡으며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자.

▲ 천년고찰 품은 벚꽃길

봄날 벚꽃 여행을 만끽하려면 대원사 왕벚꽃나무길이 제격이다. 오는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제12회 보성벚꽃축제'가 천년고찰 대원사 진입로 일원에서 열린다. 이곳은 1980년부터 심기 시작한 4,000여 그루의 왕벚나무가 5.5km에 걸쳐 '왕벚나무터널'을 이루며 장관을 연출하는 곳이다. 아름다운 풍경이 인정받아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됐으며, 매년 4월이면 벚꽃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 사계절 아름다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보성의 또 다른 명소, 국도 18호선 미력면부터 복내면까지 10km 구간에는 1960년대 조성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 펼쳐진다.

봄에는 연둣빛 새순이 반짝이고, 여름에는 싱그러운 녹음이 우거지며, 가을에는 붉게 물든 단풍이 낙엽이 되고, 겨울에는 하얀 눈꽃이 피어나는 등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한다.

특히 복내면 유정리 커브 길은 이른 아침 사진작가들이 몰려드는 사진 명소로 유명하다. '보성다향대축제'가 개최되는 5월에는 이곳에서 '보성녹차마라톤대회'가 함께 열려, 달리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 해변과 녹차가 함께하는 힐링 여행

봄바람을 맞으며 바다를 감상하고 싶다면 율포솔밭해수욕장을 추천한다.

따뜻한 남해안의 기운을 품은 이곳은 바닷가와 송림이 어우러진 낭만적인 풍경을 선사한다. 여행의 피로를 풀고 싶다면 '율포해수녹차센터'에서 녹차해수탕을 즐겨보자. 차향 가득한 탕에 몸을 담그면 피로 해소는 물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 봄빛 물든 차밭, 보성에서 즐기는 다향의 향연

보성은 대한민국 대표 녹차 생산지로, 보성 녹차밭은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계단식으로 펼쳐진 차밭과 부드러운 봄 햇살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

보성 다원은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CNN이 선정한 '세계의 놀라운 풍경 31선' 중 하나로 소개될 만큼 독특한 매력을 지니며, 차밭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오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가 열린다. 축제 기간 다양한 체험과 지역 특산물을 즐길 수 있으며, 싱그러운 차밭 속에서 차의 깊은 향을 음미하며 특별한 봄날의 추억을 만들 기회가 될 것이다.

▲ 오봉산, 봄의 시간을 걷다.

보성의 명산 오봉산(해발 324m)은 기암괴석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남해와 인근 산세가 한눈에 펼쳐지는 전망을 자랑한다. 봄이 오면 온화한 기운과 함께 푸른 숲이 더욱 생동감 있게 변하며, 등산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오봉산의 대표 명소인 '칼바위'는 30m 높이로 날카롭게 솟아 독특한 풍경을 만든다.

산길을 따라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돌탑이 오봉산의 분위기를 더하며, 정상에서는 남해와 주변 산들이 어우러진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과거 구들장을 나르던 우마차길이 남아 있어 옛 보성의 생활상을 떠올리게 한다.

보성/김운기 기자

장성군, 장애인 복지 증진 약속 지켰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착공… 4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첫 삽'

장성군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공약사업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장성군은 지난 20일부터 장성읍 영천리 일원(1449-2번지)에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공사를 시작했다. 1947㎡ 부지에 바닥면적 499㎡, 지상 1층 규모로 프로그램실, 휴게실, 샤워실, 조리실, 의무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31억 원이 투입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지역 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생활 훈련, 자립 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4월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도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옆 3984㎡ 부지에 바닥면적 528㎡ 규모로 짓는다.

장성지역 장애인을 위한 생산시설로 내부에 작업실과 창고, 재활상담실 등을 갖춘다. 경제 활동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해 권익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군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두 시설과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인접해 장애가 있는 군민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고흥군, 여수안전체험교육장 현장견학 교육 실시

안전 체험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의식 고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현장에서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여수안전체험교육장에서 중대재해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의 재해 상황 체험 중심 교육으로, 현장에서의 실무 적용과 재난 시 대응능력 강화 등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안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으로는 고소작업, 안전 보호구, 위험작업 등 산업안전체험,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전기 및 화기 작업 안전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체험교육 통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밀폐공간 ▲떨어짐 ▲지게차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 유형을 중심으로 체험하고 안전작업 방법을 숙지하는 맞춤형 교육이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현장 체험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업무 담당자와 현업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험교육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 본격 추진

제1호 사업 '완도군BC 유소년 야구단 육성 지원' 선정

완도군은 야구를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으로 「완도군BC 유소년 야구단 육성 지원」을 선정했다.

지정 기부 사업은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에 기부하는 형태이다.

군은 지난 2024년 창단된 관내 유소년 야구단을 지원하여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6월 말까지 「완도군BC 유소년 야구단 육성 지원」을 위해 지정 기부 목표 금액 4천만 원을 모금하며, 기부금은 야구 꿈나무들의 훈련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 대회 참가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완도군BC 유소년 야구단」은 약 1억 원의 운영비를 학부모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3일 전북 순창군에서 열린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서 창단 1년 만에 전국대회서 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냈다.

한편 완도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여 미취학 아동 육아 여성 해양치유센터 이용 지원 '육아 맘, 해(海)강스 치유의 달 운영' 및 섬마을 취약계층 이불 빨래 봉사를 위한 '청산면 마을 공동 빨래방 운영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완도/장광식 기자

2024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우수상 시상

무안군, 4년 연속 수상… 시상금 3천만원 받아

무안군(군수 김산)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24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실적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경상보조금) 3천만 원을 받았다. 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속적인 성과를 이어간 결과이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는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월체납액 징수율, 징수규모, 이월체납액 대비 정리보류율, 공매처분율, 자동차세 징수촉탁 건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다. 무안군은 이월체납액 34억 6천만원 중 18억 1천만원을 징수해 징수율 52.3% 달성했으며, 이월체납액 대비 3억 2천만원을 정리 보류하는 등 5개 평가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형배 세무과장은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 및 독촉장(체납장) 발송 등으로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고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이월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순천시, '시민 걷기왕 선발대회' 개최… 100명 선정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체지방 측정하고 걷기앱 예약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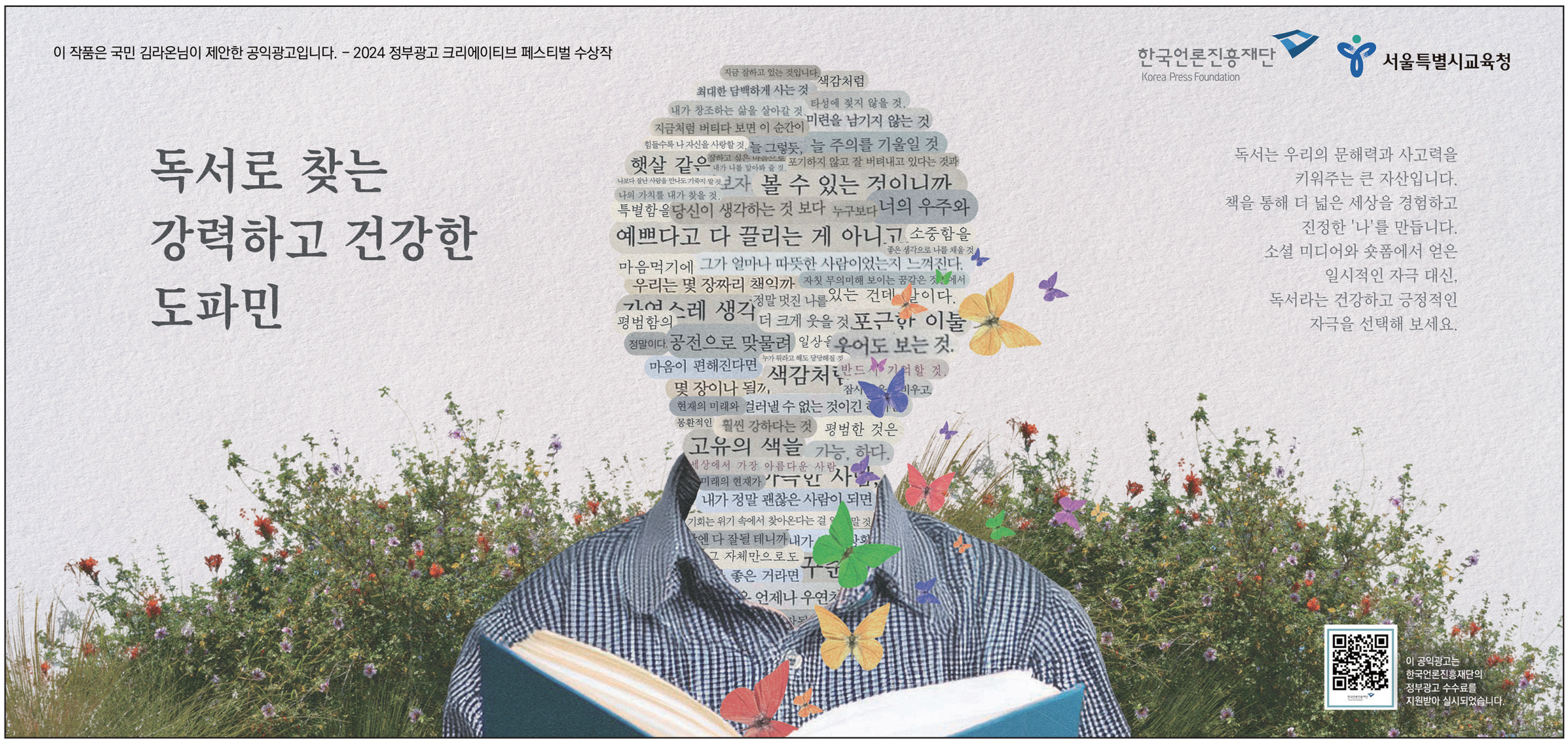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생활 속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시민 걷기왕 선발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100명의 걷기왕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기준은 1일 만보 제한으로 매월 10일 이상 걷고, 6개월 동안 120만보 이상 걷기와 함께 체지방 3kg 이상 감소하는 것이다. 선정된 시민에게는 순천사랑상품권 3만원이 지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핸드폰 앱인 워크온에서 순천시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보건소 2층 운동영양실을 방문하여 사전 인바디 검사(체지방 측정)를 받아야 한다.

인바디 검사 후에는 운동처방사 및 영양사의 맞춤형 운동법, 식이요법 등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6개월 걷기 운동이 끝나면 10월에 다시 한번 체지방 측정을 통해 자신의 신체 건강 변화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이번 시민 걷기왕 대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